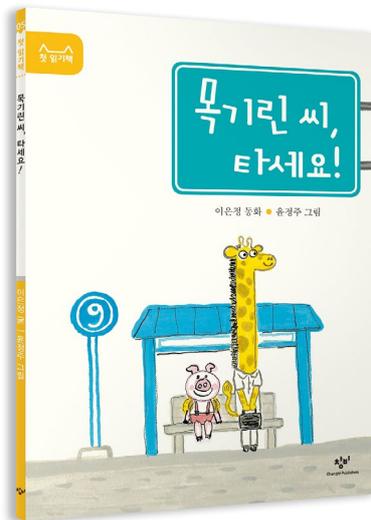


1~2학년

구성 김수현
서울 정수초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목기린이예요. 버스 타고 싶은 목기린요!”
목기린 씨를 위한 마을버스 만들기 대작전



목기린 씨, 타세요!

이은정 지음 | 윤정주 그림 | 창비 | 2014

목이 아주아주 긴 목기린 씨가 화목 마을로 이사 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경쾌하게 그린 의인 동화이다. 주인공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이 차츰 변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법'을 전하는 따스한 이야기이다.

남들과 다르게 목이 길다는 이유로 마을버스에 탈 수 없는 목기린 씨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 목기린 씨를 둘러싼 화목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따라가며, 어린이 독자들은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태도를 배우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목기린 씨 타세요』의 책의 줄거리를 간추린 것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빈칸이 보이네요. 책을 열심히 읽은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서 완성해 주세요.

[] 마을에 [] 관장이 []를 만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 씨가 이사를 왔어요. [] 씨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를 꼭 타고 싶었지만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 때문이지요. [] 관장에게 []를 보내도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라는 친구가 [] 씨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를 탈 수 있게 된 [] 씨! 그렇지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 씨는,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를 타고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활동지 3 감정 낱말 고르기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낱말이 있어요. 이 낱말들 중에서 『목기린 씨 타세요』 속 등장인물들이 느꼈을 것 같은 낱말을 골라 봅시다.

만족스럽다	자랑스럽다	홀가분하다	상쾌하다	든든하다	통쾌하다
주눅들다	조마조마하다	망설이다	무섭다	부끄럽다	두렵다
부럽다	피곤하다	귀찮다	불편하다	어색하다	심심하다
괘씸하다	속상하다	미안하다	불쌍하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 Q1. 고슴도치 관장에게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는 목기린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Q2. 목기린 씨의 편지를 계속 받는 고슴도치 관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Q3. 버스가 없어서 먼 회사까지 걸어가야 하는 목기린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Q4. 꾸리 씨가 목기린 씨를 도와준다고 말했을 때 목기린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Q5. 목기린 씨가 처음으로 버스를 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 Q6. 교통사고를 당한 목기린 씨,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활동지 4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동물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동물 친구들의 속마음을 적어 봅시다.



